

왕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도

3/02 월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 8: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 14:30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눅 19: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눅 11: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

눅 22:32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두고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대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눅 22:40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시고,

눅 5: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눅 6: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시 109:4 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저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3/03 화

마 6:9-10

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눅 11:2-4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3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시 8:1 오, 여호와 저희의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사 29:23 그가 그 가운데서 내 손으로 만든 자기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벧전 3:15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단 2:44-45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45 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3/04 수

마 6:11-13, 14-15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15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18:21-22**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골 3: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 17: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살후 3:3**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3/05 목**

**마 6: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눅 11:1,5-8,9-10**

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  
5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세 개만 빌려주게.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한다면,  
7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없이 졸라 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10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5:3** 오, 여호와님! 아침에 주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무어라 하시는지 보렵니다.

**사 50: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3/06 금**

**눅 11:11-13, 33-34**

11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12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13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34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 6: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롬 10:12-13**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3/07 토**

**왕상 8: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시 48:1-2**

1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신다네.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엢 2: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신 8:7**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3/08 주일****단 9:3-5, 9-10, 13, 15-23**

3 그래서 나는 금식하며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그분을 찾고자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4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말하였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여,

5 저희는 죄를 짓고 죄악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동하고 거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판결에서 빛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9 주 저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베푸시나, 저희는 그분을 거역하였습니다.

10 저희는 여호와 저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종 신언자들의 손을 통하여 저희 앞에 두신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저희에게 닥쳤어도, 저희는 저희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진리를 주의함으로써 여호와 저희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5 오, 주 저희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어 오늘날까지 주님 자신을 위해 이름을 떨치신 분이시여, 저희가 죄를 지었고 저희가 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16 오, 주님, 주님께서 나타내신 의에 따라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을 향한 주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죄들과 조상의 죄악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주변 모든

이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17 오, 저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18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저희의 황폐함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큰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19 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20 내가 이렇게 아뢰며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고 있을 때

21 곧 기도로 아뢰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이상 가운데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예물을 바칠 즈음에 완전히 탈진하여 있는 나에게 이르렀다.

22 그가 나에게 말하며 알려 주었다. “다니엘이여, 나는 그대에게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려고 왔습니다.

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움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Hymn: 779

Further Reading:

*Life-study of Matthew*, msg. 21